

조원태, 보잉사 등 협력 강화... 韓-美 항공산업 교두보 역할

〈한진그룹 회장〉

현장경영 통해 통합 항공사 체비 차세대 항공기 구매 등 48조 투입 정부 대미협상 과정 적극 지원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최근 미국 보잉사·GE에어로스페이스와의 협력을 강화하며 민간 통상외교관 역할에 적극 나섰다. 통합 대한항공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차세대 항공기 도입에 초대형 투자를 진행, 우리 기업에 대한 관세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미국 정부와의 관계 개선에도 힘을 쓰고 있는 것이다.

23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조원태 회장은 21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워싱턴 D.C.에서 켈리 오트버그 보잉 최고 경영자, 러셀 스톱스 GE에어로스페이스 상용기 엔진 및 서비스 사업부 사장 겸 최고 경영자 등과 만나 대한항공-보잉-GE에어로스페이스 간 협력 강화 서명식을 가졌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에 맞춰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대한항공, 보잉, GE 3사 협력 강화를 위한 서명식'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에서 세 번째),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오른쪽에서 네 번째), 하워드 러트니 미국 상무부 장관(왼쪽에서 세 번째), 켈리 오트버그 보잉 최고 경영자(왼쪽에서 네 번째), 러셀 스톱스 GE에어로스페이스 상용기 엔진 및 서비스 사업부 사장 겸 최고 경영자(왼쪽에서 첫 번째) 등 양국 정부 및 기업 대표 관계자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기단을 확대하고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차세대 최신행 항공기 도입에 적극 나섰다. 이를 위해 대한항공은 보잉사와 지난해 7월 영국 '판버러 국제 에어쇼'에서 맺은 양해각서(MOU) 이행을 조속히 마무리하기로 했다. 보잉 777-920대와 보잉 787-10 20대를 2033년까지 도입하고, 향후 비슷한 조건으로 항

공기 10대를 추가 구매할 수 있는 옵션을 논의했다.

또 GE사의 예비 엔진 8대(옵션 엔진 2대 별도) 구매와 보잉 777-9 항공기용 GE9X 엔진 관련 정비 서비스 계약도 조속히 마무리해 항공기 및 엔진에 대한 제작사 지원을 강화한다.

3사간 협력 규모는 항공기 구매 249

억달러, 예비 엔진 구매 및 엔진 정비 서비스 78억달러로 총 327억달러(약 47조 9700억원)에 달한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단순히 기업 경쟁력 확대를 넘어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한 우리 기업의 부담도 낮추는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미 수출 비중이 큰 한국 기업들의 관세를 지적해왔다. 지난 3월 4일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연설에서 "한국의 관세가 4배 높다"고 언급하며 "우리는 한국을 군사적으로 그리고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도와주는 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며 본격적인 관세 압박에 돌입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특히 이날 행사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니 미 상무장관이 자리했다는 점도 양국 정부간 우호적 관계 형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결국 조 회장이 국적 항공사 수장으로 정부와의 대미 협상 과정에서 민간합동 구도를 만드는데 적극적 역할을 펼쳤다는 평가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신형기 수요가 높아지는 가운데 항공기 공급분을 조기에 확보해 증장기 도입 계획을 차질없이 수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석화업계, 임원 감축 등 구조조정 본격화

업황 악화에 대응책 마련 분주 "세금 감면 등 정부 지원책 절실"

석유화학업계가 업황 악화에 따른 비용 절감을 위해 인력 감축에 속속 나서고 있다. 임직원 수가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이 같은 구조조정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업계에서는 사업구조의 고부가가치 전환을 추진하고 있지만 투자 여력이 부족한 만큼 세계 혜택 등 정부의 뒷받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모습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3년 연속 적자를 기록 중인 롯데케미칼의 지난해 말 직원은 4764명으로 집계됐으며 전년 동기 대비 194명 줄어들었다. 특히 임원 감소세는 두드러졌다. 미등기 임원은 78명으로 전년 대비 17명이 줄었다. 명시적으로 희망퇴직을 시행하지는 않았으나 업계에서는 자발적으로 회사를 떠난 인원들이 채용 규모보다 더 많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LG화학의 지난해 말 직원 수는 1만 3857명으로 전년 대비 613명 줄어들었다. 석유화학 사업 부문 직원은 6161명으로 1년 만에 363명이 감소했다. LG화학 석유화학 부문은 지난해 첨단소재사업본부 생산기술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기도 했다.

SK이노베이션의 임직원 수는 SK E&S 합병에 따라 전년 대비 증가했다. 지난해 말 기준 SK이노베이션의 전체 직원 수는 2148명으로 전년 대비 538명 증가했다. 다만 전기차 배터리 자회사인 SK온의 지속적인 실적 부진과 높은 부채 부담은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인력 감소는 곧 급여 지출 축소로 이어져 기업들의 비용 절감 효과를 낳았다. 롯데케미칼은 인력 축소 등을 통해 약 8억원의 급여를 절감했고 LG화학은 2269억원의 인건비를 줄였다.

그럼에도 석화 업계의 체질 개선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기업들은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전환

하며 경쟁력 확보에 나서고 있으나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분석된다. 롯데케미칼은 고부가가치 제품의 매출 비중을 6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달성 시점은 2032년으로 단기간 내 성과를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2024년 12월 산업경쟁력 강화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공급과잉 NCC 설비 합리화 ▲글로벌 시장 경쟁력 보강 ▲고부가가치 창출로의 사업 전환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대응이 자율적인 생산 조정 유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제조 현장의 부담이 누적되고 있는 만큼 세금 감면이나 전기세 완화 등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기업들도 증장기 전략을 자신 있게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렉서스 디 올 뉴 LX 700h 차량들이 도로를 달리고 있다.

/렉서스코리아

강력한 파워에 안정적 코너링... 주행성능

자동차 시승기

렉서스 '디 올 뉴 LX 700h'

플타임 사륜구동... 제로백 6.5초

렉서스의 라인업 중 최고등급 'LX라인'이 국내에 출시됐다. 이번에 선보이는 4세대 디 올 뉴 LX 700h는 기존 대형 SUV와는 차원이 다른 성능과 주행 능력, 안정성, 특히 오프로드 기능의 특별함을 보여주고 있어 대형 SUV의 끝판왕으로 불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디 올 뉴 LX 700h는 전동화 실현을 위해 새로운 병렬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됐다.

렉서스의 GA-F 플랫폼을 기반으로 제작된 LX 700h는 배기량 3.5리터 V6 트윈터보 기술된 엔진에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조합됐다.

플타임 사륜구동 시스템이 적용된 로드와 오프로드 등에서 안정적인 주행 감을 갖춘 점이 강점이다. 10단 자동변속기가 탑재됐고 최고출력은 457마력, 최대토크는 80.6kg.m의 강력한 파워를 지녔다. 제로백(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에 도달하는 시간)은 6.5초다. 실제 고속도로 주행 시 제로백 체감은 강력한 파워 토크로 3~4초에 불과한 느낌이었다.

강력한 성능으로 길이 5095mm에 2.8톤이 넘는 차체에도 빠른 움직임과 함

께 고속 코너링에도 안정적으로 움직였다. 방지턱이나 불규칙 노면에서도 부드러운 주행이 가능하고 일상 주행에서 엔진소음과 노면소음 등은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복합 연비는 8.0km/L로 하이브리드 SUV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낮다. 실제 고속도로 주행에서는 7km/L를 보여주면서 효율보다는 강한 힘을 자랑할 수 있는 럭셔리 대형 SUV다.

고속도로 터널에 진입하게 될 경우 대부분의 차들이 압력 변화와 반사 음원으로 고통스러운 소리가 들린다. 하지만 이번 LX 700h의 경우 차음유리를 사용했고 기존 대비 더욱 두꺼운 유리를 사용, 타이어에도 신기술을 도입해 소음 차단에 각별히 신경 써 터널 진입 시 차량 내부에서는 소음이 거의 들리지 않았다.

실내 공간은 2850mm의 휠베이스(앞뒤 바퀴간 거리)로 동급 대비 여유로운 공간성을 갖췄다. 2열 시트 역시 일정 각도만큼 뒤로 젖힐 수 있어 안락한 승차감을 느낄 수 있었다.

2억원에 가까운 차량으로 가격대가 부담이 있지만 '돈 값'하는 차량인 것은 확실하다. 온로드 주행에서는 편안하면서 묵직한 힘, 오프로드 주행에서는 강인하면서 안전성까지 갖추면서 럭셔리 대형 SUV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고 평가하고 싶다. /이승용 기자

김동관 부회장,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자사주 30억 매입

〈한화그룹〉

주식 매입 통해 책임경영 실천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사진)이 최근 유상증자를 발표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식 매입에 나선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김동관 부회장이 자사주 30억원 규모를 매입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지난 21일 종가 기준으로 약 4900주다. 이와 함께 손재일 사업부문 대표와 안병철 전략부문 사장도 각각 9억원(약 1450주), 8억원(약 1350주)의 주식을 매수하기로 했다. 이들은 오는 24일부터 순차적으로 주식을 매수할 예정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결정이 유럽의 독자 재무장과 미국의 해양방산 및 조선해양산업 복원의 큰 흐름 속에서 회사의 미래 성장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주식 매입을 통해 책임경영을 실천하고 회사와 주주의 미래 가치를 제고한다는 방안이다.

앞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20일 이사회에서 약 3조 6000억원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유럽 방산 블록화'가 뚜렷해지는 가

운데 단시간 내 현지화를 위한 대규모 투자가 시급해졌다는 입장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유상증자로 확보할 자금 중 1조 6000억원으로 폴란드, 루마니아, 호주, 미국, 사우디 등에서 생산거점 확보 및 합작법인(JV) 설립 등을 위한 투자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급증한 추진장악(MCS) 스마트팩토리 설립에 9000억원, 미국의 해양방산 및 조선 산업기반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해외 조선소 확보에 8000억원, 무인기 엔진 및 체계 양산을 위해 3000억원을 투자한다. /이승용 기자 lsy2665@